

가정에배 · 구역에배 교재

5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에배
구역에배
남성구역에배

요한복음 · 시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5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요한복음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 ② 충현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푸소서.
- ③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사역에 온 성도가 헌신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 ④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교구가 성장하여 온 교회가 참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 ⑤ 양육과 훈련의 모임을 통해서 충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소서.
- ⑥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신실하신 주님

주님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의 주님

다시 하늘로 오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나의 주님

새 언약의 소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 놀라워라 주님의 은총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약속 모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약속의 이루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안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갑시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05년 5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손학익의 한국사



남주 손학익

비서인물 이영철, 유재현, 유영, 남주
남주 손학익도 유영, 이영철, 유재현, 유영

남주 이영,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토요동상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이영,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남주 손학익



매일 성경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시 119:105-108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묵상 315 장 150 구절

본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공관복음의 내용이 객관적 성격을 띤 전기체인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 해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로고스(말씀)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또한 생명이 특징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각시키고 있는 본장은 내용상 말씀 그 자체인 예수(1-4절), 증거자 세례 요한(6-8절), 참 빛이신 예수(9-13절), 말씀의 성육신(14-18절), 세례 요한의 증언(19-28절), 하나님의 어린양(29-34절), 첫 번째 제자들(35-42절), 빌립과 나다나엘(43-5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참 빛 되신 생명의 주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자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어떤 이는 권력자의 이름을, 어떤 이는 재산가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 차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롬 10:1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장은 1장의 주제와 연속되는데, 다만 예수께서 표적과 행위를 통하여 직접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되었지만, 실상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증거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도 수많은 이적들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는 권능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의 반응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공생애 초기부터 예수의 신성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최종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시며 자신이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세울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45년 동안 지은 유형적 성전과는 분명 질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새 성전은 건물로서의 신축될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세워질 새 성전은 새로운 종말론적 성전이며, 궁극적으로 가시화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분명하게 참된 새 성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가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매일의 삶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에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7대 강화 중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강화는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성도의 거듭남의 교훈(1-8절), 예수님의 자기 증거(9-1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16-21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22-3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거(31-3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의 원인이 되신 자로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적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여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하며 전능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자비를 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기도 제목 ① 우리의 눈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베푸신 교훈과 표적을 다루고 있는 본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강화로서, 자기 계시의 원리와 초청의 원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택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대적들과의 무모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함이었고 둘째, 소외받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보편성을 부각시키셨는데 이러한 본장은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1-6절), 우물가의 여인(7-15절), 참 예배의 본질(16-26절),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27-30절), 참 양식(31-38절), 사마리아인들에게 증거(39-42절), 갈릴리 사역 시작(43-45절), 신하의 아들을 살리심(46-54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놓아 둔 채 마을로 뛰어가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이 접한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에서 가슴 벅차 오르는 소망을 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여인의 실천적 믿음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선교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모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혼자만 그 감격을 누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복음을 우선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① 천국의 생명을 받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과 예수 자신의 신성에 대한 강화로서, 본서 전체에 일관되게 부각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예수 사역의 공간적 배경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본장과 전장 사이에 일어난 갈릴리에서의 예수의 여러 행적이 소상히 언급되어 있지만, 본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과감히 생략한 채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갈릴리에서의 사역보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약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장은 세 번째 표적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1-9절), 유대인의 핍박 고조(10-18절), 아들의 권한(19-21절), 심판하는 권세(22-30절), 예수에 대한 증거(31-39절), 예수 거부에 대한 경책(40-47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 등이 만일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된다면 이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전통과 관습을 앞세우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율법의 참된 의도에서 벗어난 인습적 제도들의 해로운 영향력은 실로 독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성도간의 연합, 협력에 강력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유일한 교정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 사역과 말씀을 좇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유일한 지표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중심이 말씀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앞장에서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으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충돌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갈릴리에 이르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장에는 두 가지 표적과 그 표적에 따른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인데,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 배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자기 선언과 제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주의적 열광주의를 만족시키는 메시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거부하신 것이다. 이러한 본장은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1-15절), 다섯 번째 표적인 물 위를 걸으심(16-21절),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22-24절), 생명의 떡(25-40절), 하늘로서 내려온 떡(41-51절), 인자의 삶과 피에 대한 교훈(52-59절), 제자들의 변론(60-65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66-71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 보다 위대한 메시아임을 보여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기적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보기보다는, 기적의 결과에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있는 예수님 자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 제목 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께서는 초막절이 되자 안전한 장소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위협을 정면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살의를 충분히 감지하셨음에도 이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초막절)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유월절까지는 반 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예수께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영적 진리를 가급적 많이 선포하셔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예수를 불신하는 형제들(1-9절), 유대인들의 이견(10-13절),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14-18절), 공의의 판단(19-24절), 성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25-30절), 체포령(31-36절), 생수의 강(37-44절),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45-53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로서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만이 생수를 마실 것이요, 그에게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흘러 남에게 생수를 주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세상의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이며, 남들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제공하는 생수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깊이 묻힌 보배입니다.

기도 제목 ① 오늘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주의 생수로 내 영혼을 덮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웁니다.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두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함입니다(5절).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심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입니다(마 12:10). 그들이 멀리하는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 11:19).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 그때 주위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판단하는 죄인들이 지닌 마음의 간음(영적 간음)을 보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빛이십니다(12절).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를 판단하시든지 그 판단은 참된 것입니다(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판단하시기보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사죄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 십니다. 그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소경은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10절).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8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원칙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사 55:8).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사 55:9).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체없이 행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5절).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적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따라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치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대적하시며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확장과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소경이 보며...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마 11:5,6).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기도 제목 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7절). 양의 문은 도적이 들어오는 문과는 다릅니다. 도적은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8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요 9:40,41). 그들의 모든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을 궁지로 몰아넣어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도둑 같이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 구원의 처소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귀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 가운데 죽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18절). 주님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는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27절).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28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사람들임을 알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기도 제목 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
는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마리아의 오라비입
니다. 나사로가 병들자 그 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
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
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
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시
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 땅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향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대가 삼합니다. 방금까지 그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돌로 치려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8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의 도시
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25,26절). 얼마 후, 나사로는 무덤에서 부
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합
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
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요 1:18).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활과 영생을 얻
게 됩니다(요 3:16). 부활과 영생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5)

기도 제목 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② 찬양 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유월절 엿새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큰 무리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13절).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세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세상의 권세라는 가치관에 따른 고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밀알처럼 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알의 밀알 같이 죽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로마 5:18). 바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딤후 2:14).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빌 2:8)

기도 제목 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 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시작하십니다.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14,15절). 상전이 결코 종을 씻기지 못하던 세상의 가치관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과 섬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5절).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엡 3:20-22).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히 12:1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 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원들이 ‘단기선교’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과 천국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6,7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2절). 하지만 그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으로 영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2,3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믿음’(10-12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13,14절)을 강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이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보혜사(保惠師)를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16,17절). 세상이 알지도 보지도 못한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전 12:3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공홀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 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5절). 그렇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과실은 고사하고 마르고 썩을 뿐입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2절). 하나님은 제자의 과실을 보길 원하십니다. 제자가 맺어야 하는 과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마 7:16-27).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니라”(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18절).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핍박 가운데서도 과실을 맺는 신실한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갈 6:14).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행 11:23)

기도 제목 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과실을 맺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난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에는 환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때를 당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환난을 담대히 헤쳐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주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7-15절). 주님의 죽음이 당장에는 제자들을 슬픔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큰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요 16:6-7).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보혜사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을 말씀하십니다(요 14:16,17; 15:26,27).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8,1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커다란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게 됩니다(행 2:1-4). 이렇게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요 20:22)

기도 제목 ① 성령님과 함께 동행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 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서는 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은 겐세마네의 기도를 생략한 대신 '대제사장의 기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본문을 통하여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부와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로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히 6:20).

이 기도는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1-5절). 그리고 제자들의 충성을 간구하다가(6-19절),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염원하는 내용(20-26절)으로 끝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보다는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염려하시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현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예수님만이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세상 좌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요 1:29).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히 8:6)

기도 제목 ①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께서 수난 받으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요한은 대제사장 가이바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문 받으시는 모습을 생략하였습니다. 대신해서 요한은 빌라도의 재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29-40절). 이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을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 마음으로는 동조하였습니다(38절). 그러나 그는 거센 여론에 굴복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정죄 받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왕권 때문임을 본문은 보여 줍니다(33-37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요 19:1). 로마 군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왕이 입을 옷의 색깔과 같은 자색 옷을 입혀 왕이라고 환호하며 조롱합니다(요 19:2).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는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고난 받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37절). 예수님의 왕권 행사는 세상적인 권력의 행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가시 면류관이 말해주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왕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요 19:19).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사 53:5)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수난 예언이 본장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최종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시종 일관 온유한 주님의 모습은 그가 바로 인류를 구원한 유월절 양이심을 보여줍니다(고전 5:7). 성경은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빌 2:8). 본문이 그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른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코 비참한 희생적인 죽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살리기 위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요 10:11). 예수님께서서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요 10:17,18).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하여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여유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요 19:19)

기도 제목 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소서. ② 각 나라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님은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요 11:43,44; 막5:41,42; 눅7:14,15).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당신이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생전의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확증하셨습니다(15절).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산 영’으로 창조되었으나, 둘째 아담인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고전 15:45).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고전 15:20).

사도 바울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였습니다(고전 15:54,55). 특별히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정복하셨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매우 힘찬 어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생명이 죽음에게 삼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정복당한다는 진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유한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영생의 수여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기도 제목 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20장). 그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1,2절). 부활하신 이후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돌보고 있으시며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5,6절). 특히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주님을 배반함으로써 사도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한 인간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를 보여 주는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 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15-17절).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은 분들은 없습니까? 그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자였습니다(마 26:35).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를 가운데에도 이러한 실패와 좌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본문의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하심의 은총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6)

기도 제목 ① 신앙 생활하다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소서. ②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은 매 예배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시마다 많은 찬양을 드리면서도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찬양을 드린다면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까? 본 시편에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그 찬양의 이유를 서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3절). 그리고 계속해서 5절부터 18절에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6,7절). 둘째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8-14절). 셋째로, 하나님 외의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으로서 사람들의 수공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15-18).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 인생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며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 시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도다”(15-18절). 인생을 허탄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시 62:1)

기도 제목 ① 우상을 경배하는 이 땅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② 단기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시인은 본 시편을 통하여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창조 사역(5-9절)과 역사의 섭리(10-20)와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21-24)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를 다스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특별히 뽑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면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고전 5:7). 하나님의 아들 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시편의 찬양처럼 감격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1,2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벧전 2:3)

기도 제목 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브라데 강변에서 지난 날의 기쁨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예루살렘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길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1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인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벧후 3:12). 만약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후회해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마 25:30).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고전 15:31).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은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할 찬양을 오히려 자신들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노래하는 오락거리로 전락시켜버립니다(3절). 이것은 우리들 역시 복음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려 한다면 주님의 사역을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한 일로 전락시켜 버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루살렘을 늘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5,6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조롱거리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주님께서 이룩하실 주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늘 우리 마음에 가득 넘쳐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미땅히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를 늘 살피며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기도 제목 ① 나의 의가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하소서.
② 순요한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2절). 아멘! 주님은 자신의 성품 중의 하나인 인자와 성실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5절).

내가 환란 중에 있을 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7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완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8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니...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후 1:20-22).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할 때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참마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었드릴 때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갈 1:4)

기도 제목 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친구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1-3절). 내가 사백의 햇살처럼 빠르게 날아간다고 해도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지식과 행사와 지으심은 너무나 기이하여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6,14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보배롭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15-18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추어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23-24절).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끄러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거짓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죄를 찢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 즉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24절).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편과 행위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갈 2:20)

기도 제목 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소서. ② '총현선교훈련'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마 6:13). 다윗 역시 본문에서 악인으로부터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올무가 있고 줄이 있는지, 어디에 그물과 함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내게 해가 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해하려는 계락을 가지고 우리를 애우고 덤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단과의 싸움을 전쟁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7절).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임을 알아도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6절). 시인은 하나님께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함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시인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전쟁의 날에 머리를 가리우시는 분이시며(7절),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시며(8절),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분이십니다(12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에서 건져주실 수 있으시며 또한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합니다(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13)

기도 제목 ①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거룩한 심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2절). 그래서 자신의 입술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므로 자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움직이는 입술이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3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술은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입술의 고백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녀들과 사단의 자녀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고후 6:14).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서 아직도 어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십니까? 비록 그 관계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득을 줄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5절).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죄를 책망하는 소리가 걸림돌이 되어 주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요 6:61).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었드릴 때에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9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15)

기도 제목 ①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전 교회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다윗은 동굴 속에서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의 심령이 위축되고 절망될 때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3절).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위축되고 절망적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2절).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3절).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나의 고통을 아는 자도 없고 설만한 피난처도 없으며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4절).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을 아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 영혼을 돌아보십니다. 그러기에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5절). 주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7절).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놓여졌기 때문입니다(롬 6:14). 이 은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9).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기도 제목 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② 한국교회의 모든 해외 선교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주의 목전에서 의로운 인생을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절).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담할 뿐입니다(4절).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6절). 여러분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마른 땅과 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친히 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7).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11절).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8절).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품으로 숨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9절). 그 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12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12절). 그리고 주께서 내 영혼의 상함과 참담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며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기도 제목 ①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늘 깨닫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9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서 사람은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3절). 더 나아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의 원천이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주님만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새 노래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로서 죄의 값을 대신 치루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가득 넘쳐야 할 것입니다(계 5:9,10).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하니”(계 5:13). 아멘! 오직 주님만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새 노래가 오직 어린 양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시 96:1)

기도 제목 ① 나의 모든 것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으로만 사역하는 많은 단기선교사들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구역예배공과

5월 구역공과 포인트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다시오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핵심 포인트
5/6	행 1:1-11	승천	주의 승천에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
5/13	행 2:1-4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 약속된 성도의 자유
5/20	행 2:11-12	그 차이를 기억하라	성도 안에 약속된 새 언약의 소망
5/27	갈 5:7	진리에 순종하라	새 언약에 약속된 참된 진리

1.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공과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소요시간 25분	소요시간 15분

1. 승천(ASCENSION)

| 포인트 |

주의 승천에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

| 찬 송 |

151장 (다시 사신 구세주),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 본문 행 1:1-11 |

¹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²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³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⁶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⁷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⁹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¹⁰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¹¹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곧 하늘로의 귀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시간만큼 놀라운 기적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승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이후 승천까지의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지상사역들은 어떠하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땅에 오셨을때, 그렇게 오랫동안 그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위대한 교사요 치료자요, 예언자로서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눅 24:50)

주님은 약속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후 40일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_____ (요 20:19)

두 번째: _____ (요 20:26)

세 번째: _____ (요 21:1)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요11:1; 요11:25-26)

2. 베다니에서의 예수님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행 1:4)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행1:5)

제자들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위험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머물러야 할 곳을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행1:6,7)

3. 승천하신 예수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행 1:11)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행동에 옮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경이로운 승천의 날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눅24:5)

주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4.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 16:7)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열흘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날을 성령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열흘 동안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행 1:14)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요 16:13)

5.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비록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20)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가 되셨고(엡 1:22), 모든 믿는 자에게 영광의 이 되었습니다(골 1:27).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 약속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성장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천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회개와 함께 그들의 삶의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행2:43,44).

다시 오시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 간절한 기도 |

1.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2.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2. 성령강림절(PENTECOST)

| 포인트 |

성령강림절에 약속된 성도의 자유

| 찬송 |

179장 (이 기쁜 소식을),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 본문 행 2:1-4 |

¹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²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향해 하신 중요한 약속의 하나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을 교회는 성령강림절로 지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많은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장차 성취되어질 약속들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강림은 구약을 통해 예표되어진 시간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 설교 읽고 나누기

1. 부활로부터 50일 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행 2:1)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공동체적 기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신학적,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 _____ (레 23:5)

무교절 : _____ (레 23:6-8)

초실절 : _____ (레 23:9-14)

칠칠절 : _____

(레 23:15; 신 16:9-12; 출 34:22)

칠칠절은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을 말합니다. 날짜로 따지면 초실절과 칠칠절 사이에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의 첫 열매(초실)에 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50일 뒤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날은 오순(열흘=순(旬))이 지난 날이기에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2. 강림하신 성령님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
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
하여 있더니 (행 2:2,3)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받았고 그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고후 3:17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
함이 있느니라

고후 1: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으로 성
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오시기 전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세상의 족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
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한 여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있어야 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 간절한 기도 |

1.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소서
2.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기울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
게 하소서

요 14:26 (성경을 찾아 써보세요)



롬 8:14 (성경을 찾아 써보세요)

4.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 도전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4:30)

성령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로 인치사, 그리스도의 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죄의 사슬에서 시키시며, 하늘의 를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른 첫 들을 자라게 하시고 거두십니다.

3. 그 차이를 기억하라

| 포인트 |

성도 안에 약속된 새 언약의 소망

| 찬송 |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 본문 엡 2:11,12 |

¹¹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¹²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 설교본문 나누기

1.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엡 2:11)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는 육체로 말하면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당이라 칭하며 택함받은 유대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 10:12,13)

그러나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파해야 할 그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율법과 계약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2. 진노 받을 사람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엡 2:1)

하루하루를 감사하다

우리에게 구원 이후와 이전은 천지차이와도 같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전의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브라운

영혼의 변화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송진

성도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 전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엡 2:2,3)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을
쫓고 공중의 □□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을 따라 지내며 □□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
□의 □□이었더니”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믿은
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 언약 밖의 사람들

여호와와 친밀함이 정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
시리로다 (시 25:14)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필
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모세, 이사야,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찾아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소망, 기쁨, 평강, 의로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에 속하는 영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2.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슬프게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마23:15)

4. 소망 없는 사람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엡1:18)**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을 때 거룩함도 의로움도 없었
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전
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
랑 안에서 그 앞에 ☐☐ 하고 ☐ 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4,5)



4. 진리에 순종하라

| 포인트 |

새 언약에 약속된 참된 진리

| 찬 송 |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본문 갈 5:7 |

⁷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 나온 우리들이지만, 과연 우리들의 중심에는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길에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가 처음으로 이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행 16:6). 하지만 지금 그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돌아서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 앞에 다시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 받았다고 자신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2.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 24:24)

거짓 교사들과 유대출신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너무 쉽게 복음에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의 성경구절을 찾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갈1:6-8 / 갈2:16]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참 진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유창한 언변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다고 하여서 그것이 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3. 다툼과 논쟁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 5:15)

다툼과 논쟁을 일삼다 보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다투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1.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 5:7)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즉시 그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과 의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 | | |
|-----------|--------------------------|
| 갈 4:14 · | ·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
| 롬 1:17 · | ·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 딤후 2:11 · | · 나를 업신 여가지도 아니하며 |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와 다름이 있는 곳에는 ☐☐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약 3:16)

성도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요 13:35). 그리고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같이 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갈 5:14).

다음 성경구절을 찾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도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집니까?
약 3:17,18

4.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 5:17)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을 거스려 싸웁니다. 육신에게 지면 우리 인생은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고 있는 열매는 어떠한가요? (갈 5:22,23)

남성도구역예배공과

어떤 불행한 경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십자가로 路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육신을 못 박으십시오.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나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 간절한 기도 |

1.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거짓과 다툼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랑 안에 살게 하소서
2.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누가 너희를 막아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잘못된 길로 돌아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즉시 그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참 믿음과 의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번 방문 때 바울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대했던 것과 같이 바울을 대했습니다.(갈 4:13-15)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도대체 누가 그 놀라운 진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라는 진리를 몸소 알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딤후2:11)라는 말에 담긴 능력과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바 되어 살기 위해 부지런히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진리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를 내던지고 율법으로 돌아선 것은 유대출신의 몇몇 신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면

들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죄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유명하고, 언변이 좋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지녔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툼과 논쟁들

거짓 교사 외에도 믿는 자들이 다툼과 논쟁을 일삼다 보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복음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다투기를 좋아하는 신자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툼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갈 5:14). 초대 교회조차도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고전 3:4참고).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오직 위로부

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려놓았습니다.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느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1:6-8)!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모든 권한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어떤 가르침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일 수도, 혹은 성도의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기를 얻기에 더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24). 우리는 참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재미와 오락적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6). 유대출신 신자들이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출신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할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전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감스럽게도 너무 쉽게 복음에서 혼

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약 3:17,18).

육체의 욕심들

육체의 욕심 역시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성령을 거스려 싸웁니다. 육신에게 지면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갈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건대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나 요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 |
|--------------|------|
| 찬 송 | 다 같이 |
| 성경봉독 | 사회자 |
| 메시지 낭독 | |
| 기 도 | 다 같이 |
| 주기도 | 다 같이 |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5년 5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만나 : 최성규(1-7일), 이재영(8-15일), 황진섭(16-23일), 정성영(24-31일)

구역예배공과 : 김성훈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